

조류독감 소독제 확보 이상 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제품 130종 발표 ... 재고 및 원료 충분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조류독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독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사전소독에 방역 초점을 맞추고 가금 인플루엔자에 적용 가능한 130종의 소독제 허가제품을 발표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투여는 효과가 없어 소독만이 유일한 방역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류독감에 대처하는 소독제는 염기제제와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히드제, 포르말린제, 계면활성제, 차아염소산염 등 6종과 기타 제제로 구분되며 Bayer Korea를 비롯해 중앙백신, 한국미생물, 대성미생물, 제일바이오, 이글벳, 중앙바이오텍, 대한뉴팜, 동부한농 등의 소독제 수입·제조기업이 공급하고 있다.

동물약품협회에서는 “소독제 재고를 12월18일 기준으로 32만4700kg 확보하고 있으며 언제든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25만6500톤의 원료가 준비돼 있어 소독제 부족으로 인한 방역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물량을 구입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조달청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따라서 소독제 공급기업들은 현재까지 매출이 예년과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발생할 추가 물량 납품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역원은 국립보건원에 가금인플루엔자의 인체 위해성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 발표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담당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다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으나 확률은 매우 낮으며 위험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26>